

2024년 3월 24일(주일) 제1675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종려주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9)

# 기도가 번져라!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6시, 웨스트민스터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만남의 신앙

3월 25일(월)-30일(토) 새벽 5시, 본당, 강사:손달익 위임목사  
3월 29일(금) 오후 8시, 본당, 성금요일 특별연합기도회  
3월 31일(주일) 새벽 5시 부활절 새벽예배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절기찬양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3월 25일(월)-30일(토)까지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설교는 손달익 위임목사가 담당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聖)금요일'(3월 29일) 오후 8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든 다락방이 연합으로 함께 모여 드리며, 그 주간 다락방 모임을 대신합니다. 이날 예배는 테네브레

(Tenebrae) 방식으로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3면 참조)

3월 31일(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새벽 5시 '부활절 새벽예배'가 있으며 시온찬양대가 찬양을, 양정호 협동목사가 설교를 담당합니다.

부활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성(聖)금요일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교구위원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각 교구의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부다락장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라며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찬양연습이 있습니다.

## 교회를 위한 기도회

권사회가 주관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매 주일 오후 1시 15분-45분까지 101호에서 있습니다. 김익환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설교 말씀>

요일	25일(월)	26일(화)	27일(수)	28일(목)	29일(금)	30일(토)
제목	죄인을 만나시는 하나님	버려진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	어둠속의 인생을 만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찾는 사람을 만나시는 주님	무덤 곁에서 만나시는 주님
성경	창 3:9-21	출 3:1-12	레 1:1-9	요 1:1-12	요 19:38-42	요 20:11-18
찬양대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은빛	호산나·시온	베들레헴

#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마 21:1-11



손달익 위임목사

서른셋 젊은 나이에 순결한 피를 흘려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당해야 할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식민지 청년의 울분과 고된 노동의 젊은 시절, 머리 돌 곳 없었던 가난하고 고단한 세상살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셨고 풍랑 심한 배 안에서도 뒹아떨어져 주무시던 피곤에 지친 일상, 믿고 의지하셨던 제자들의 배신을 겪으시며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인류의 모든 죄 짐을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

박다니’를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은 그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한 순결하고 용감한 발걸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결단 있는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하신 후 긴 여정을 거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지만 이번의 경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때가 온 것입니다.

## 1.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결의가 매우 강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고 그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하셨습니다.(마 20:17-19)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사실들을 아셨고,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마음 준비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 입구까지 오시어서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지시하십니다. 쉴 틈도 없고,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단호하고 명쾌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이런 예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자리다툼으로 신경전을 벌였고, 군중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과 유월절 명절 분위기에 들떠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현장으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밀어 넣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결단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 3:1-2). 죽음의 위기에서 피하여 살아남기를 결심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죽기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이제는 각오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각오는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모했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결심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예수님처럼 오늘 그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며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도록 분부하셨습니다.(2, 3절).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눅 9:9) 메시아는 겸손하신 왕이셔서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야 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예수님께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보면 끌어 끌고 올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만약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귀 주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님께 쓰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 한 마리의 도움이 주님께 필요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귀 주인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저서 중 ‘나를 따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본 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예정과 섭리가 있고 독생자의 생명이 희생되고 성령의 능력이 동원된 너무나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셔야 합니다. 또 본 회퍼 목사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지시받은 분량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예정과 섭리가 있고  
독생자의 생명이 희생되고  
성령의 능력이 동원된 너무나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신답니다’ 라는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자기 나귀를 서슴없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며 우리의 재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값비싼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께서 쓰신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자기를 드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거룩한 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 3. 그를 찬송하라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8, 9절) 때는 마침 유월절이어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온 것을 보고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양 예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특별한 일은 당연히 여기고 당연한 일은 특별한 일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특별하고도 측량 못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반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작은 헌신 하나도 마치 특별한 일인 것처럼 오만불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권리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 받으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당연한 일이며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하고 온 생애를 바쳐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당연한 감사, 찬송 헌신의 길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걸어야 하겠습니다.

#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7일, 그 행적을 따라서...

요일	행적	성경
주일	승리의 입성	막 11:1-11
	성을 바라보시며 우심	눅 19 : 41
월요일	성전을 두 번째 정결케 하심	막 11:15-26
화요일	유대인과의 마지막 논쟁	막 11:27-12:40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	마 24:3-51
	예수의 발에 두 번째 기름을 부음	막 14:3-9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	막 14:10-11
수요일	휴식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목요일	유월절 준비	막 14:12-25
	최후의 만찬	마 26:20-29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눅 22:24-27, 요 13:2-17
	성찬식 거행	마 26:26-29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	마 26:31-35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메시지	요 14-16
	겻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심	마 26:36-46
	겻세마네에서 체포되심	막 14:32-52
금요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야간 심문을 당하심 (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 18:12-13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을 받으심 (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 14:53-72
	베드로의 부인	마 26:58-75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을 또 받으심	눅 22:66-71
	가롯 유다의 자살	마 27:3-10
	총독 빌라도의 심문	눅 23:1-7
	분봉왕 헤롯의 심문	눅 23:6-12
	총독 빌라도의 두 번째로 재판받으심 - 죄수 바라바 특별 사면	눅 23:13-25
	로마 군인들의 희롱	마 27:27-30
	골고다로 끌려가심	마 27:31-34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 (오전 9시 경)	마 27:35~50
	운명하심(오후 3시 경)	마 27 : 50
	백부장의 고백	마 27:51-56
	예수께서 창에 찔리심	요 19:31-37
	예수를 장사지냄 (금요일 오후6시 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 15:42-47
토요일	무덤에 머무심	
부활주일	"예수 부활 하셨네"	막 16:1-8



테네브레(Tenebrae)는 ‘암흑’ 또는 ‘그림자’를 뜻하는 라틴어로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고난주간의 마지막 3일 중에 드리는 예전으로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드러진 고난주간 예배 형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리는 성금요일 특별연합기도회에 이 테네브레(Tenebrae) 방식으로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강대상에 켜진 7개나 12개의 촛불을 정해진 구역이나 신약의 말씀을 봉독하며 하나하나 차례로 끄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드리는 촛불 예배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촛불을 켜는 의식이라면, 테네브레는 불을 끄는 의식입니다. 목요일 밤 이후에 점점 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감을 상징합니다. 예배의 마지막에는 축도가 없으며, 회중들은 기도를 마친 후 어두운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4-7)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청년부 필리핀비전트립팀을 통해 받은 서울교회 후원물품 중 문구류와 학용품으로 지난 3월 17일(주일) 달란트 시장을 풍성하게 치렀습니다. 또한 보내주신 비타민도 한 명당 한 봉지씩 다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의류들은 바자를 열어 장학현금에 보탬 예정입니다. 덕분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 필리핀 바티아에서 박종민·김선화 선교사 -

지난주 우리 교회는



살롬대학(부장:백도환 장로)이 은혜 중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2024 봄 학기 모집

서울교회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2024 봄학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4년도 봄 학기:4. 13일(토)-6. 16(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색소폰 반은 자체 운영)
4. 문의 및 신청:납재는 집사 (010-9189-8019)

5. 구글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6. 24년도 봄 학기 운영 클래스 : 클래식기타(기초반), 성악, 댄스 클래스 추가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 (기초반)	주일	10:15-	10주	B101	장윤식 집사
	클래식기타 (중급반)		12:40-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주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성악	즐거운 성악교실	토	14:00-	10주	503	신모란 집사
연기	나를 찾아가는 힐링연기	토	11:30-	10주	702	박재현 선생
댄스	조이 워십	목	13:30-	10주	704	조경숙 권사

-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 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요 통기타·베이스 기타반, 미술은 강사 사정으로 휴강합니다.
- ※재능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강사 지원을 환영합니다.

# 한국기독교여성운동과 여성안수



이태영 변호사



두레방(My Sister's Place) symbol



전밀라 목사



전밀라와 명화용 두 여성 목사 안수식 거행 장면

한국교회의 시작은 곧 한국 여성의 권리 신장과 맞닿아있다. 기독교 선교가 여성교육과 여성의료, 여성전문직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한국의 여성들은 비로소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몽운동, 절제운동, 농촌운동, 그리고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은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열었고 남성 중심의 법률 개정운동을 벌였다. 가족법 개정운동, 호주제 폐지 운동,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 운동이 그에게서 출발했다. 그런데 가족법의 개정은 1989년, 호주제의 폐지는 2005년에 실현되었다. 참 긴 시간이었다. 50년의 세월 동안 이 운동이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이 운동의 핵심에서 지지 않고 활동했던 기독교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태영은 YWCA와 깊은 교분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기독교 여성은 든든한 동지였다.

기독교 여성 단체들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YWCA는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1960년대 중반, 식모를 파출부라는 출퇴근하는 직업으로 전환하는 일에 착수한 이후 꾸준히 여성 직업을 개발했다. 감리회의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우리교단의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와 청주도시산업선교회는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기장)의 여성들은 1980년대부터 미군기지 인근에서 이른바 '기지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다. 기지촌 여성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가장 천시 받던 여성이었다. 1986년 기장의 여성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개소한 두레방(My Sister's Place)은 당시 기지촌 여성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유일한 단체였다. 기독교

여성들은 엘리트 계층의 여성들이 느끼는 유리천장의 문제부터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생존과 존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빠르게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교회는 계속 뒤처지고 있었다. 1955년 감리회가 전밀라와 명화용, 두 명의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준 이래 1970년대까지 다른 주요 교단에서는 여성의 안수가 금지되고 있었다. 아무리 한국사회가 가부장적이라고는 하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내각에도 여성(임영신, 상공부장관)이 있었고 앞서 언급한 이태영이 1952년 판사로 추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유독 교회는 여성에게 배타적이었다.

감리회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여성에게 안수를 허용한 것은 기장이었다. 그러나 기장도 1956년 여성장로제를 도입하면서도 여성 목사 안수는 금지하였다. 기장이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준 것은 1974년이였다. 1957년 총회 안건으로 여성목사 안수가 상정되었지만 2년 넘게 연구한 결과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나, 그 규정과 정체는 계속 연구하기로' 하면서 보류하자 한동안 청원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다 1968년 1월 기장 여교역자협의회가 발족하면서 다시 여목사제도 청원이 시작되었다. 1969년과 71년 두 번의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974년 총회에서 교단 헌법에 목사의 자격으로 기술된 "35세 이상된 사람"의 '사람'이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확인하면서 별도의 투표 없이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찌 보면 그저 여성도 사람임을 확인하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것이다.

우리 교단은 1961년부터 여성안수가 논의되었다. 여성들은 거의 매년 총회에 여성안수를 청원했고 14번의 투표가 있었다. 무려 13번 부결된 셈으로 14번째 투표가 있었던 1994년에 이르러서야 여성안수가 통과되었다. 첫 논의에서부터 33년이 걸린 여정이였다. 여성들이 줄기차게 여성안수를 청원할 수 있었던 것

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이 일에 발 벗고 나섰다. 전국연합회는 설문조사, 세미나, 토론회, 좌담회, 호소문 배포, 신문 기고, 총대 설득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안수를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 1987년 여교역자회가 발족하면서 여성 전도사들도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1988년 총회 당일에는 여교역자 20여 명, 여신학생 170명을 비롯하여 이웃 교단의 여성 교역자들 20여 명도 함께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89년 총회에서는 찬성 377, 반대 375로 찬성 수가 더 많았음에도 과반이 되지 못해 부결되었고 1991년 총회에서는 여성안수가 부결될 경우 3년간 현의 불가를 결정하고 551대 620으로 부결되면서 3년 동안 현의 제한에 걸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3년의 제한이 풀린 1994년 총회에서 비로소 701대 612로 여성안수가 허용되었다. 1994년에는 전국 51개의 노회 중 24개 노회가 여성안수를 청원하면서 교회 내의 남녀평등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1999년 대한성공회, 2003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2004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11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2013년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여성안수를 결의하였다. 작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에서 처음으로 여성안수 공청회가 열렸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서도 4개의 노회가 총회에 여성안수를 청원하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2023년 5월 25일 목사안수식이 있었는데 이날 안수를 받은 49명 중 47명이 여성이었다. 더디더라도 교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단이 여성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우리 교단도 갈 길이 멀다. 우리 교단의 여성교인 비율은 57%이다. 그러나 2023년 총회의 여성 총대 비율은 2.7%였다.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여전히 우리 교단과 교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반증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 위에서 있으며 여성들의 헌신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신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합리한 일이다.

## 교회 생일카드 제작

디자인팀(팀장:김금재 안수집사)은 교구 위원회(위원장:노제현 장로)와 함께 교회 성도들에게 배포할 생일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장기 결석자 및 고령의 결석자들에게 우

편으로 보낼 인쇄물 카드 1종과 전교인의 생일에 맞춰 sns로 보낼 수 있는 e 카드 2종을 제작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은 카드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해 주신 고민정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식사 제공



- 4교구 박명철 안수집사·이소명 권사 가정 (박명철 안수집사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70인전도대 3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3.3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3.6	도르가, 루디아, 뵈비
3.10	자원자	바울, 엘리야	3.13	마리아
3.17	자원자	모세	3.20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3.24	자원자	이사	3.27	리브가
3.31	자원자	스데반회		

##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3월25일	월	삿 10-12
3월26일	화	삿 13-16
3월27일	수	삿 17-19
3월28일	목	삿 20-21
3월29일	금	룻 1-4
3월30일	토	삼상 1-3
3월31일	주일	삼상 4-8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출36	요15	잠12	엡5
출37	요16	잠13	엡6
출38	요17	잠14	빌1
출39	요18	잠15	빌2
출40	요19	잠16	빌3
레1	요20	잠17	빌4
레2,3	요21	잠18	골1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고난주간 특례에 참여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산 증인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파송 선교지와 놓여준 미자립교회, 군선교지를 돌보아 주소서.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바른 민의의 대변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박지연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